

2010년 3/4분기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 체감경기 전망

2010. 9. 20 제72호

박희석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윤형호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범식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목 차 〉

요약

- I.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
- II. 서울의 3/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전망
- III. 서울의 3/4분기 기업 체감경기 전망
- IV. 종합분석 결과 및 시사점
- 부록: 2010년 3/4분기 주요 조사 결과

요 약

2010년 3/4분기 서울의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 유지

2010년 3/4분기 서울의 경기는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상반기에 비해 성장폭은 다소 조정을 받고 있다. 산업생산은 중간재와 소비재 모두 전년동월대비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비 역시 상반기 회복속도가 더디게 나타나던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대형소매점 판매액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 부문에서는 총 취업자수가 2010년 1월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고용시장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청년층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1.7% 하락하여 청년층 취업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소비자와 기업의 경기회복 기대감은 높지만 체감경기 회복은 부진

2010년 3/4분기 서울시민에 대한 체감경기조사 결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높으나 체감경기는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3/4분기 98.5로 4분기 연속 하락하면서 기준치(100)를 하회하여 체감경기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향후 경기를 반영하는 「미래경기판단지수」는 109.7로 2009년 2/4분기 이후 연속 기준치(100)를 상회하여 경기회복 기대감은 여전히 높지만, 2010년 1/4분기 이후 점차 지수가 하락하고 있어 경기회복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 소재 기업들의 「업황전망지수」는 전분기 대비 1.5p 상승한 105.4를 기록한 반면 「업황실적지수」는 전분기 대비 1.3p 하락한 93.7을 기록하여 체감경기과 경기전망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적지수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실적은 상반기에 이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비제조업의 경우 실적이 조정되고 있어 비제조업의 체감경기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업황전망은 비제조업에서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산업별 실적과 전망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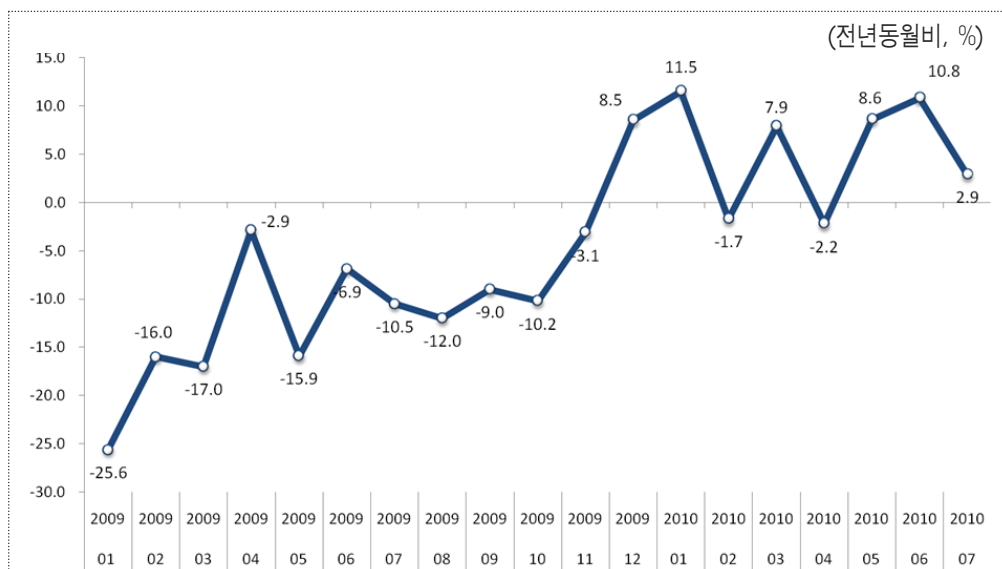
경기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생활물가관리, 청년층 일자리창출 등에 정책적 초점을 맞출 필요

최근 체감 생활물가는 농축산물 공급불안정, 개인서비스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서비스요금과 공공서비스요금의 인상시기, 인상폭 등 관련 논의를 물가동향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조절함으로써 물가 불안심리가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반기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취업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청년층 취업여건 개선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동안 서울시가 청년층 취업대책으로 진행하던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 청년창업 프로젝트 등의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I.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

서울의 생산과 내수 부문의 경기회복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상승폭이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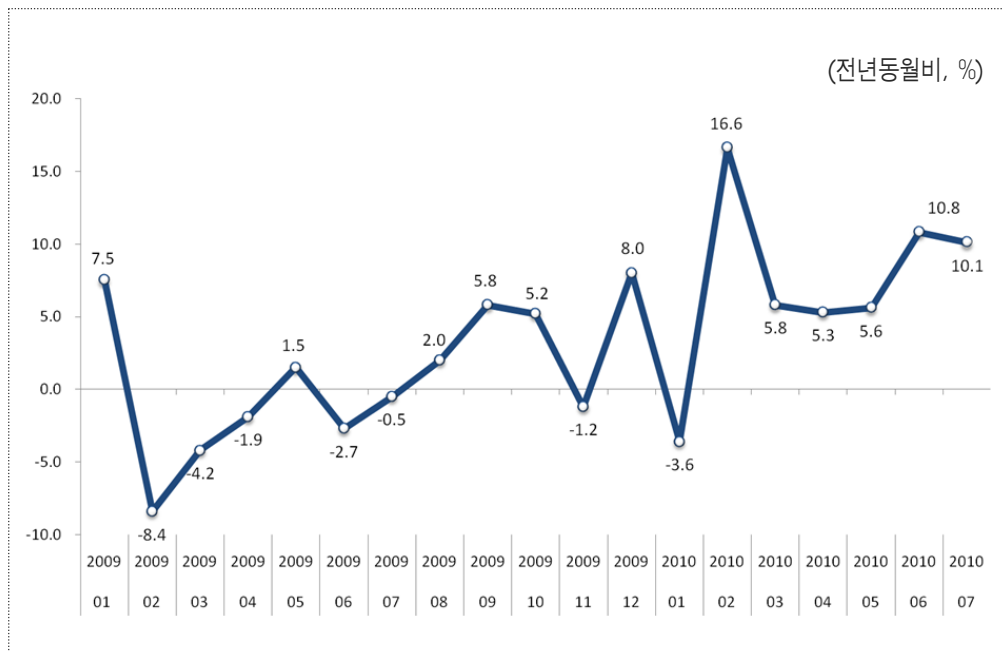
- 서울의 산업생산은 전반적인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상승폭이 다소 둔화
 - 서울의 산업생산지수는 2010년 7월 전년동월대비 2.9% 상승하여 2009년 1월 이후 지속적인 회복세를 유지
 - 빠른 회복국면을 보이던 서울의 산업생산지수는 2010년 1월 이후 혼조세를 보이며 상승폭이 다소 둔화
 - 구성요소별로 보면 제조업 중간재와 소비재 생산은 7월 중 전년동월대비 각각 1.6%, 6.3% 상승
 - 반면 2010년 7월 자본재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8% 감소하였으나 2010년 4월 이후 하락폭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



자료: 통계청

[그림 1] 서울의 산업생산지수 추이

-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불변)지수는 2010년 1월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
 - 내수로 대표되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2010년 7월 전년동월대비 10.1% 증가하여 5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
 - 부문별로 2010년 7월 현재 백화점은 전년동월대비 12.3%, 대형마트는 7.2% 증가
 - 백화점 판매액은 2009년 3/4분기 이후, 대형마트 판매액은 2009년 4/4분기 이후 증가세를 유지
 - 특히 상반기 중 백화점에 비해 증가폭이 작았던 대형마트 판매액이 2010년 6월 이후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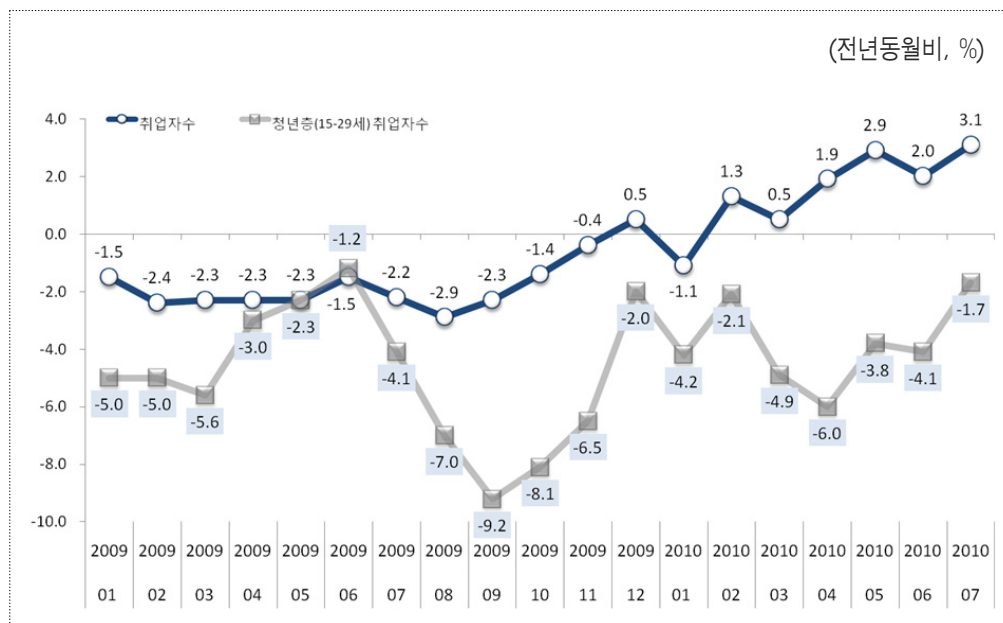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그림 2]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 서울의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 취업자수 감소폭은 축소

- 2010년 7월 서울의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3.1% 증가하여 2009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전국과 비교할 때 서울의 취업자수 증가율이 2010년 4월 이후 전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전반적인 고용사정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
- 서울의 청년층(15~29세)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1.7% 감소하여 여전히 청년층 취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2010년 4월 이후 감소폭이 빠른 속도로 축소되고 있는 추세
- 2010년 하반기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신규 채용인원이 2009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어 청년층 취업개선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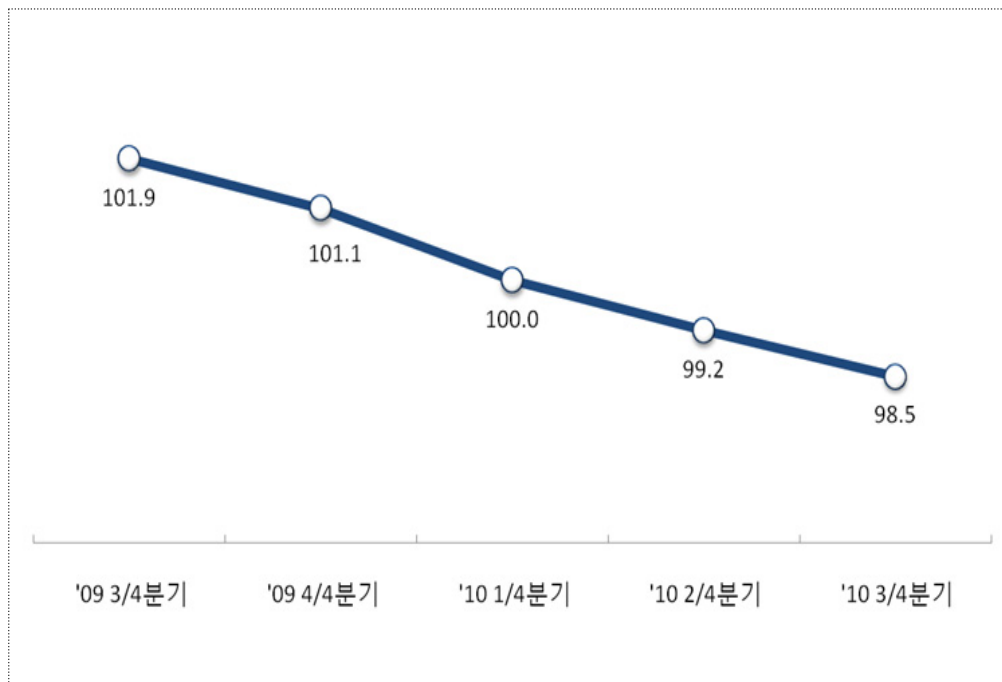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그림 3] 서울의 취업자수

II. 서울의 3/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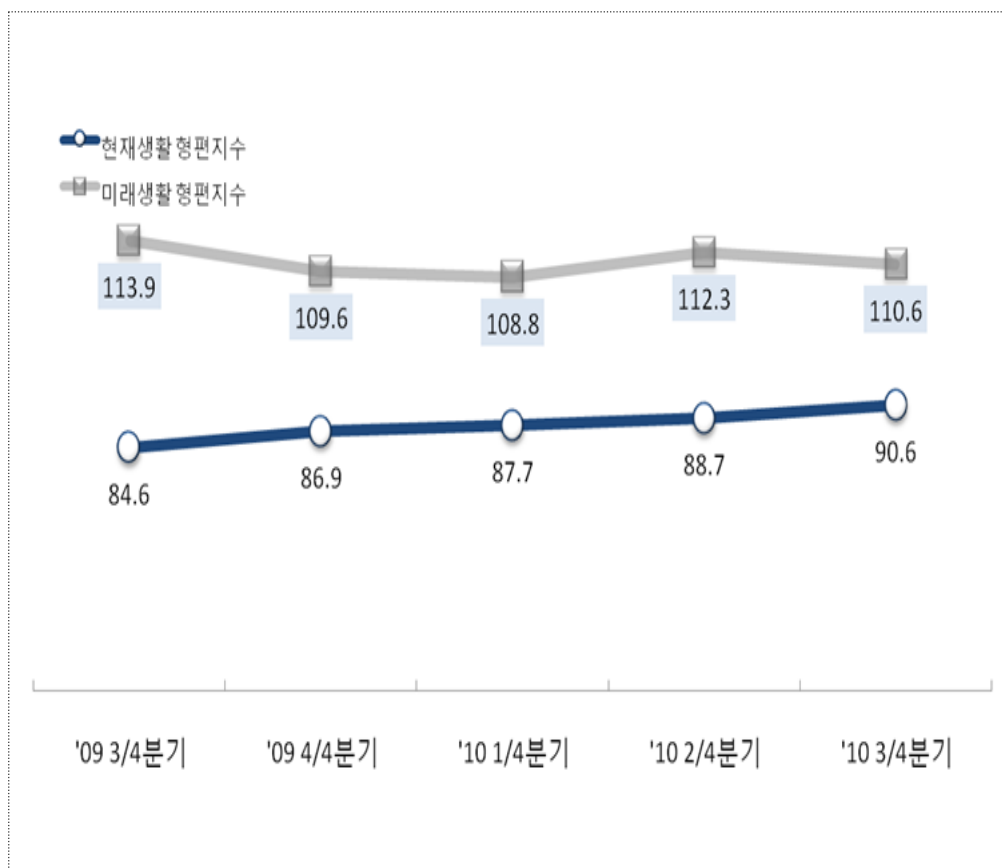
서울 소비자의 높은 경기회복 기대감에 비해 체감경기는 중립적인 상태를 유지

- 2010년 3/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전분기 대비 0.7p 하락한 98.5를 기록하여 2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하회
- 서울 시민의 전반적인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09년 3/4분기에 정점인 101.9를 기록한 이후 4분기 연속 하락
- 전분기 대비 하락폭은 2010년 1/4분기 이후 점차 작아지는 추세
- 2010년 2/4분기와 3/4분기 연속 기준치(100) 이하를 기록하였지만 기준치에 근접하고 있어 서울의 소비자들은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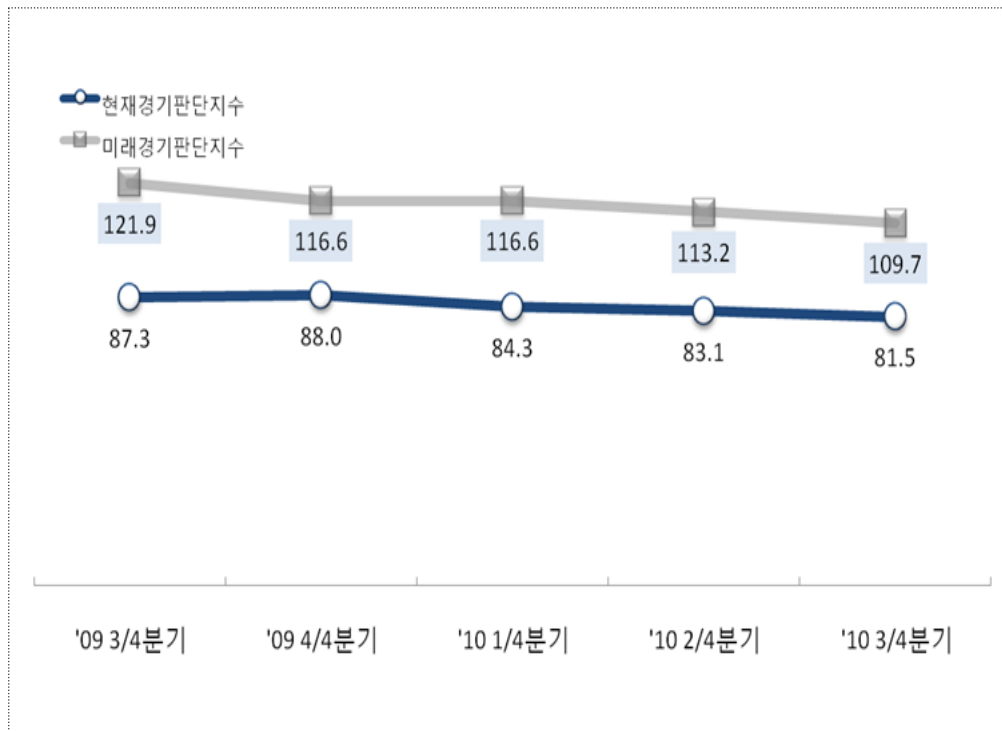
[그림 4]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

- 서울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분기대비 상승하였으나 「미래생활형편지수」는 소폭 하락
- 2010년 3/4분기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분기 대비 1.9p 상승한 90.6을 나타낸 반면 「미래생활형편지수」는 1.7p 하락한 110.6을 기록
 - 「현재생활형편지수」는 2008년 4/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
 - 반면 「미래생활형편지수」는 전분기에 비해 다소 하락하였으나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어 향후 생활형편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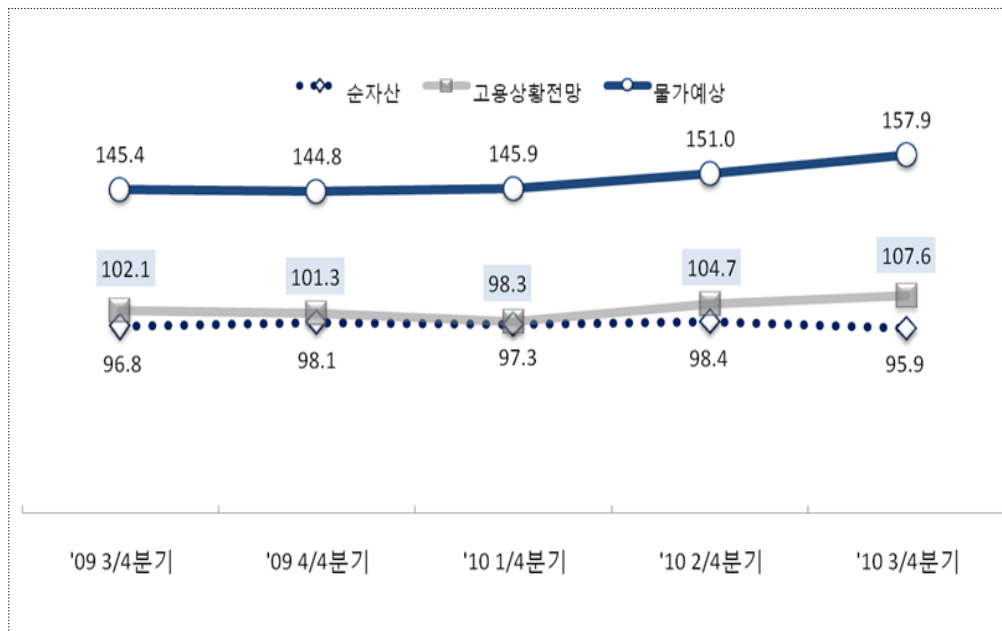
[그림 5] 서울의 생활형편지수

- 서울의 「미래경기판단지수」는 109.7을 기록하고 있어 1년 후 경기에 대한 소비자 기대심리가 여전히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
- 2010년 3/4분기 「현재경기판단지수」는 2/4분기 대비 1.6p 하락한 81.5, 「미래경기판단지수」도 전분기 대비 3.5p 하락한 109.7을 기록
- 「현재경기판단지수」는 2009년 4/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하락하여 현재 서울의 체감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
- 반면 「미래경기판단지수」는 여전히 기준치(100)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1년 후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
- 다만 2010년 1/4분기 이후 지수가 점차 하락하고 있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그림 6] 서울의 경기판단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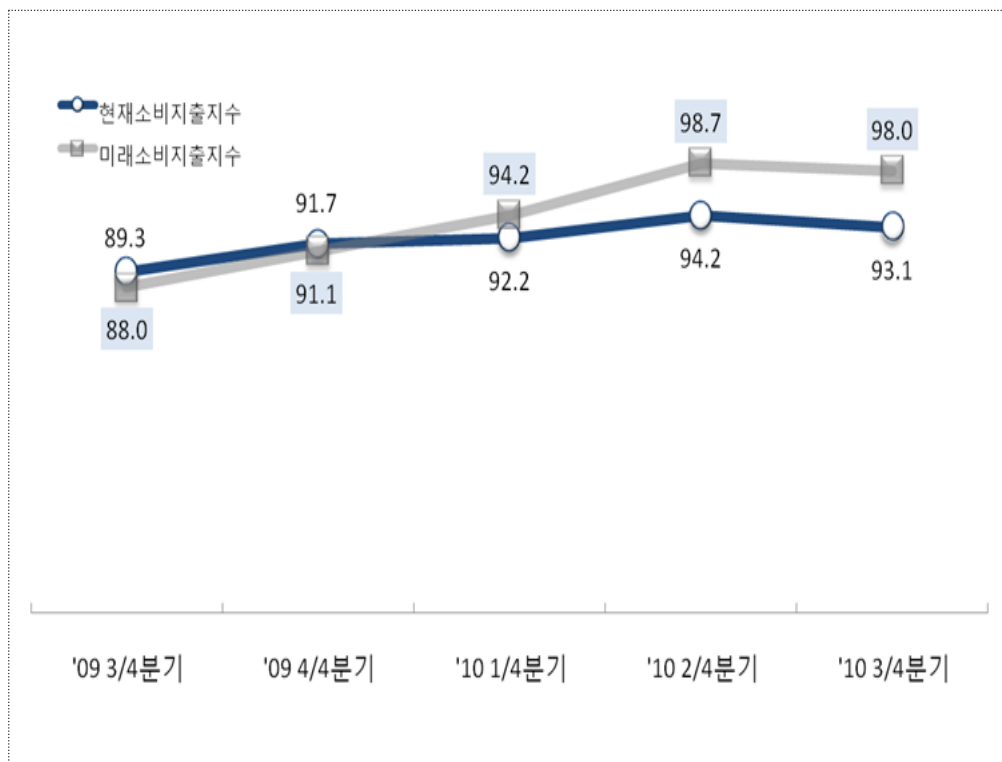
- 「고용전망지수」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순자산지수」가 감소하고, 「물가예상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 2010년 3/4분기 「순자산지수」는 2/4분기에 비해 2.5p 하락한 95.9로 순자산이 감소한 가계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
 - 순자산 감소 이유가 부채증가(38.0%)와 부동산 감소(34.5%)라는 응답이 72.5%를 차지하여 최근 거론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하락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판단
 - 「고용상황전망지수」는 3/4분기 107.6으로 1/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상회하여 하반기 고용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2010년 3/4분기 「물가예상지수」는 전분기보다 6.9p 상승한 157.9를 기록
 - 2010년 상반기부터 지속된 물가불안 심리가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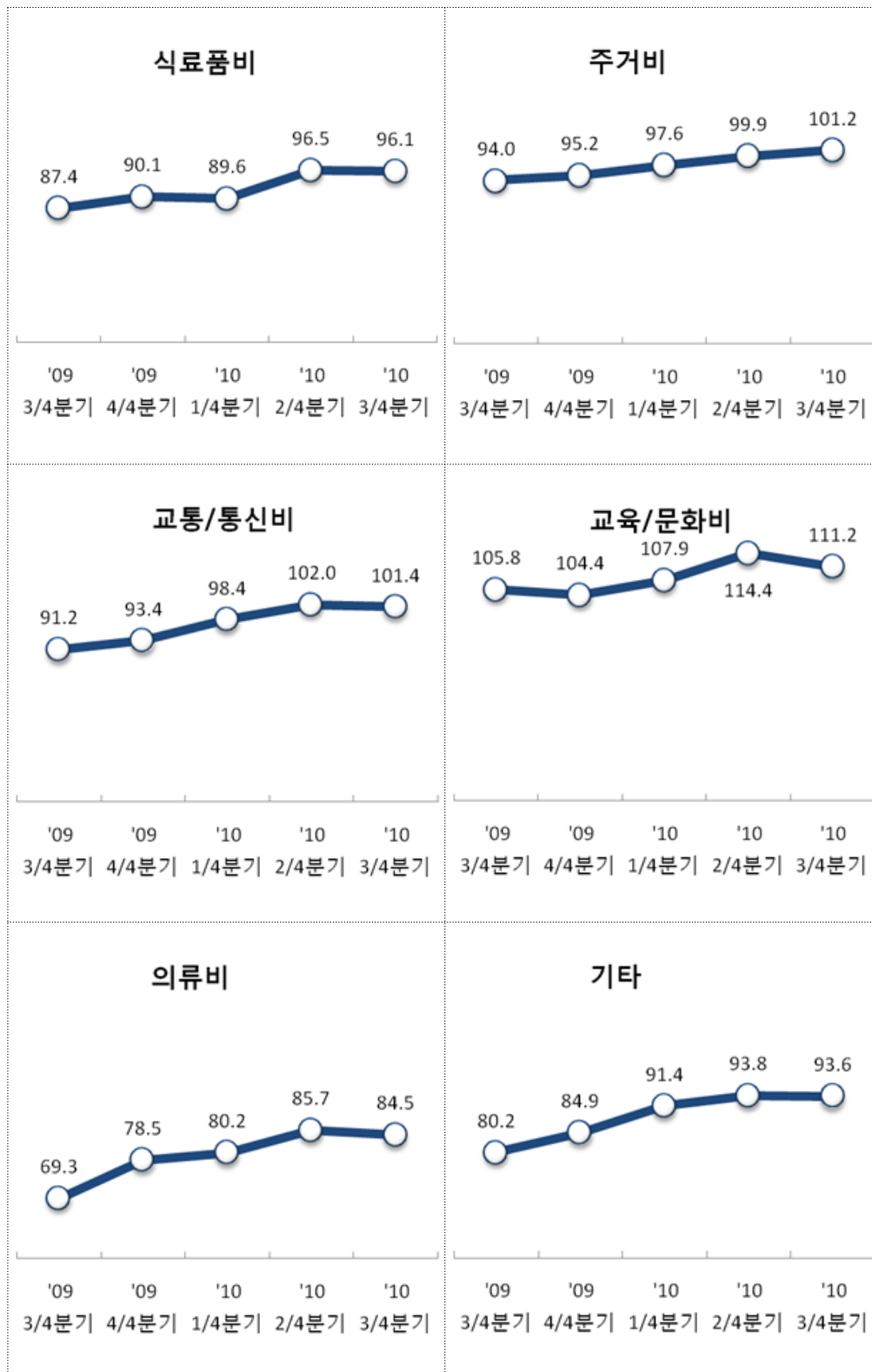
[그림 7] 서울의 순자산, 고용전망, 물가전망지수

체감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약화로 소비지출이 주춤

-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는 전월대비 1.1p 하락한 93.1, 「미래소비지출지수」는 0.7p 하락한 98.0을 기록
 - 2010년 2/4분기까지 빠르게 개선되었던 소비지출지수가 3/4분기에 93.1로 다소 조정되는 모습
 - 품목별 「미래소비지출지수」 조사 결과 '교육/문화비(111.2)', '교통/통신비(101.4)', '주거비(101.2)' 품목은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조사된 반면 '식료품비(96.1)', '기타(93.6)', '의류비(84.5)'는 감소할 것으로 조사
 - '주거비'를 제외한 전 품목에서 전분기 대비 지수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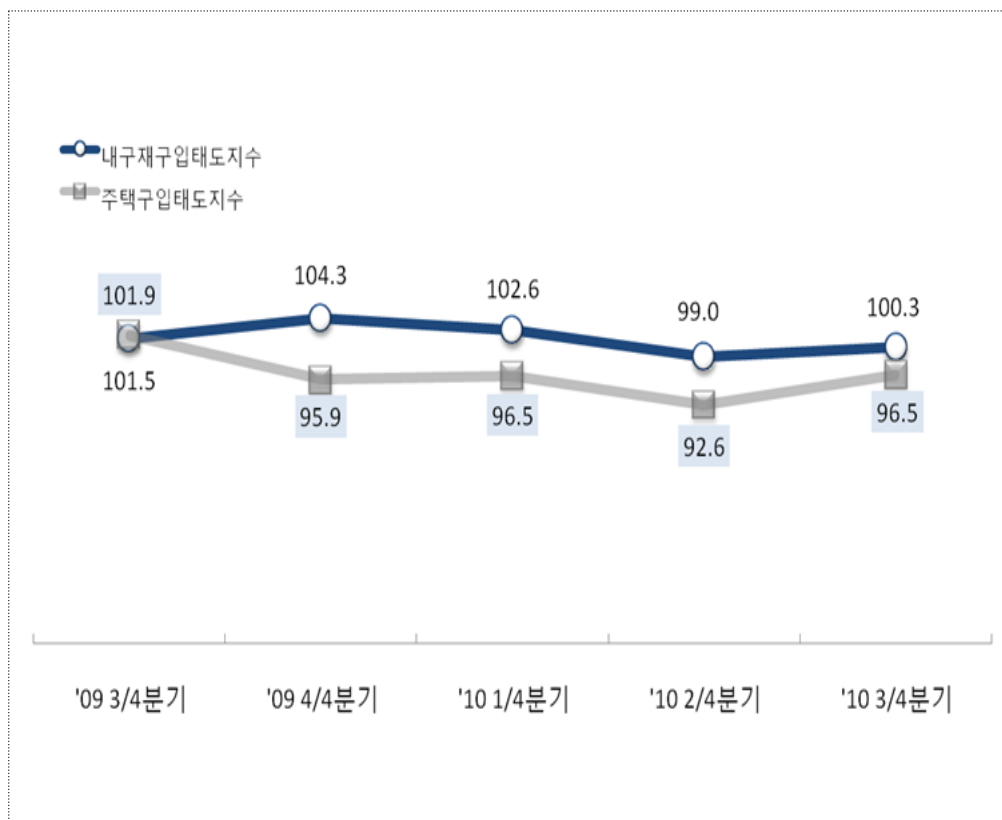


[그림 8] 서울의 소비지출지수



[그림 9] 품목별 서울의 소비지출지수

- 2010년 3/4분기 서울의 「내구재구입태도지수」와 「주택구입태도지수」 모두 기준치(100)에 근접하여 소비심리가 안정적
 - 2010년 3/4분기 「내구재구입태도지수」는 2/4분기보다 1.3p 상승한 100.3으로 기준치(100)를 상회
 - 2010년 3/4분기 「주택구입태도지수」는 96.5로 2/4분기보다 3.9p 상승하였지만 4분기 연속 기준치(100) 이하 기록
 -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총부채상환비율 규제(DTI) 완화정책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주택구입 심리가 소폭 개선된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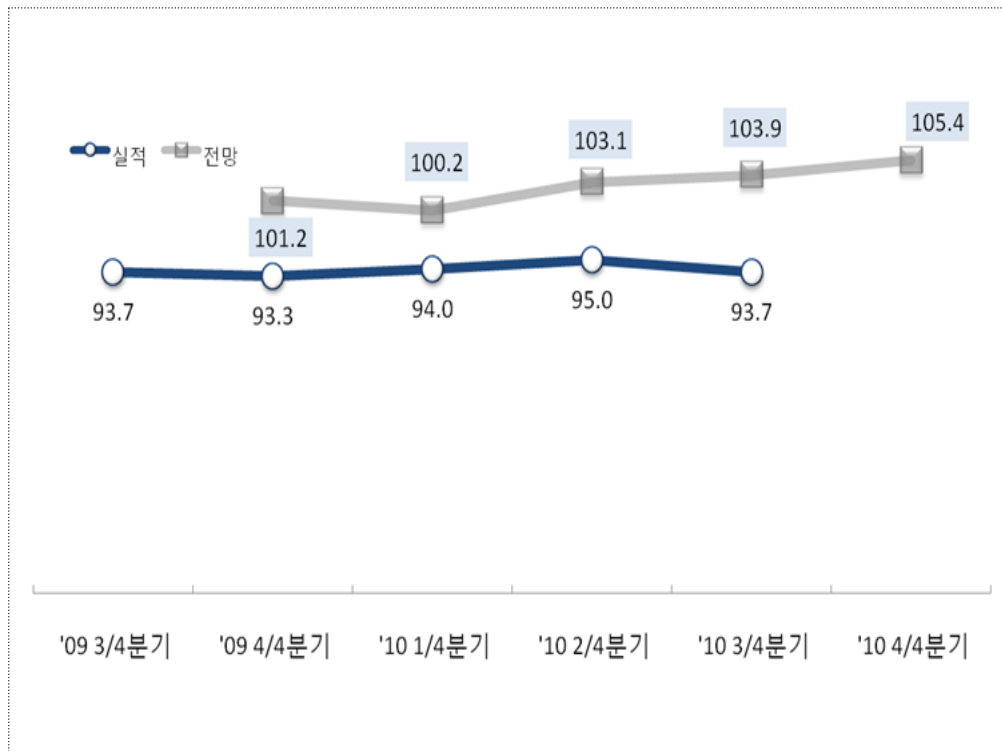


[그림 10] 서울의 내구재 및 주택 구입태도지수

Ⅲ. 서울의 3/4분기 기업 체감경기 전망

서울의 기업 체감경기는 2010년 1/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회복세는 더딘 속도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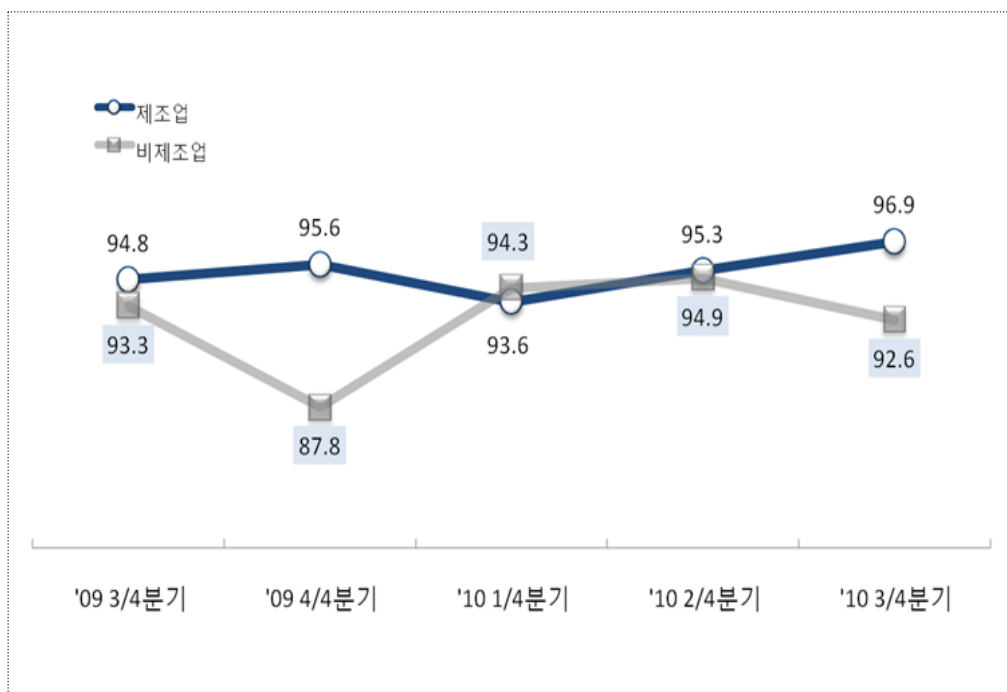
- 서울의 2010년 3/4분기 「업황전망지수」는 105.4로 2/4분기 대비 1.5p 상승하여 경기회복 기대감을 반영
 - 반면 「업황실적지수」는 93.7로 전분기보다 1.3p 하락하여 기업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조사
 - 「업황전망지수」는 4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상회한 반면 「업황실적지수」는 기준치를 하회하여 체감경기 회복이 여전히 더딘 것으로 판단



[그림 11] 서울의 업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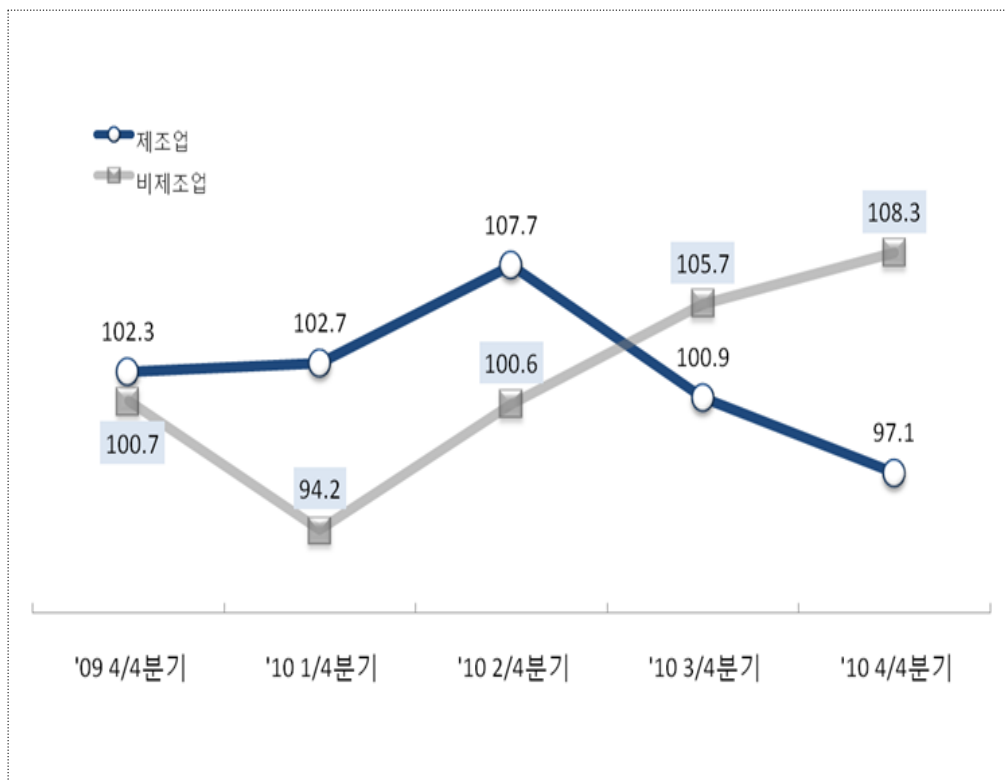
업황실적은 제조업, 업황전망은 비제조업에서 개선되어 실적과 전망이 산업별로 엇갈리는 것으로 조사

- 2010년 3/4분기 서울의 제조업 업황실적은 전분기와 비교하여 1.6p 상승한 96.9를 기록한 반면 비제조업은 전분기 대비 2.3p 하락한 92.6을 기록
 - 수출 증가, 설비가동률 향상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의 업황실적은 개선된 반면 내수, 매출부문 등이 부진하여 비제조업의 업황실적은 악화
 - 2010년 상반기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업황실적이 동시에 개선되었던 것과 비교할 때 산업별로 체감경기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
 - 비제조업의 업황실적 부진은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물가 불안감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



[그림 12] 서울의 산업별 업황실적지수

- 서울의 제조업 업황전망은 전분기 대비 3.8p 하락한 97.1을 기록한 반면 비제조업 업황전망은 2.6p 상승한 108.3을 기록
 - 서울의 제조업 업황전망은 실적지수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2/4분기 이후 2분기 연속 하락
 - 2009년 3/4분기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100)를 하회하여 향후 전망을 불투명한 것으로 보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조사
 - 반면 서울의 비제조업 업황전망은 2010년 1/4분기 이후 상승세 유지
 - 실적지수 악화에도 불구하고 업황전망이 상승한 것은 향후 내수회복 등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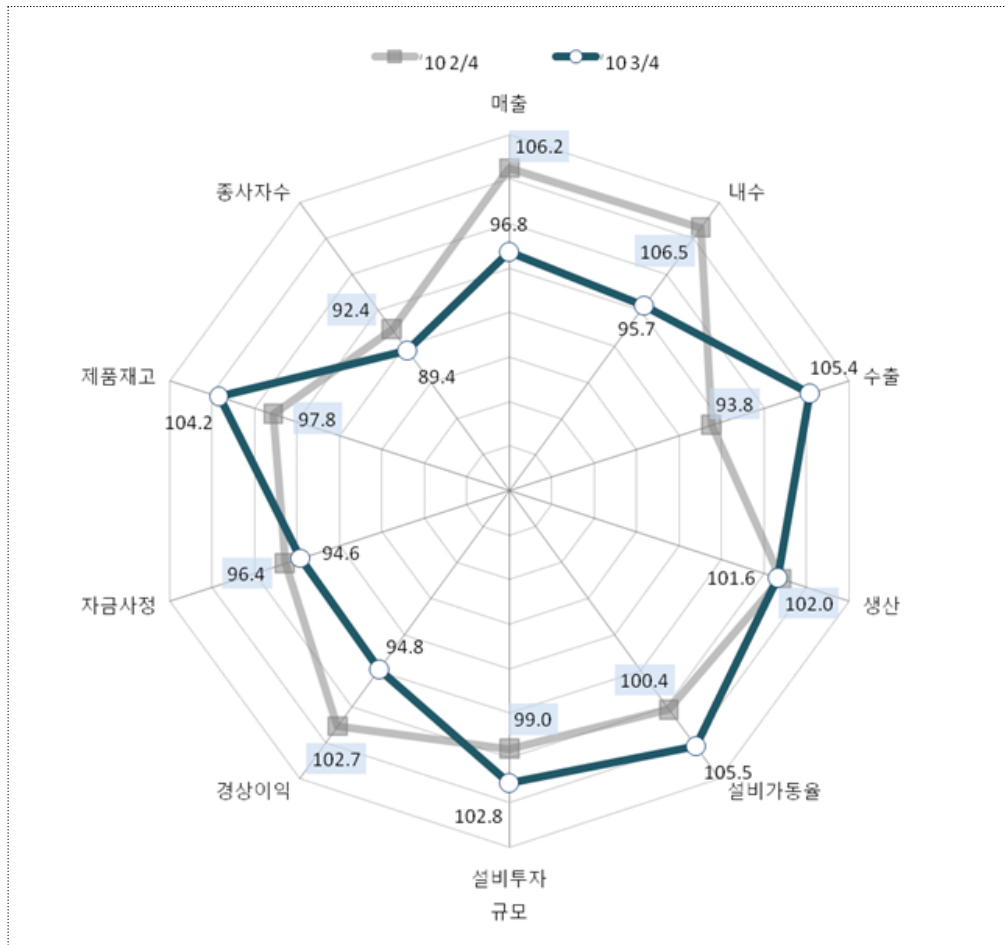


[그림 13] 서울의 산업별 업황전망지수

부문별 실적 및 전망 조사 결과 서울소재 기업의 매출·내수는 둔화, 수출·제품재고는 회복세를 유지

□ 2010년 3/4분기 서울소재 기업의 수출, 설비가동률, 설비투자 규모, 제품재고 실적은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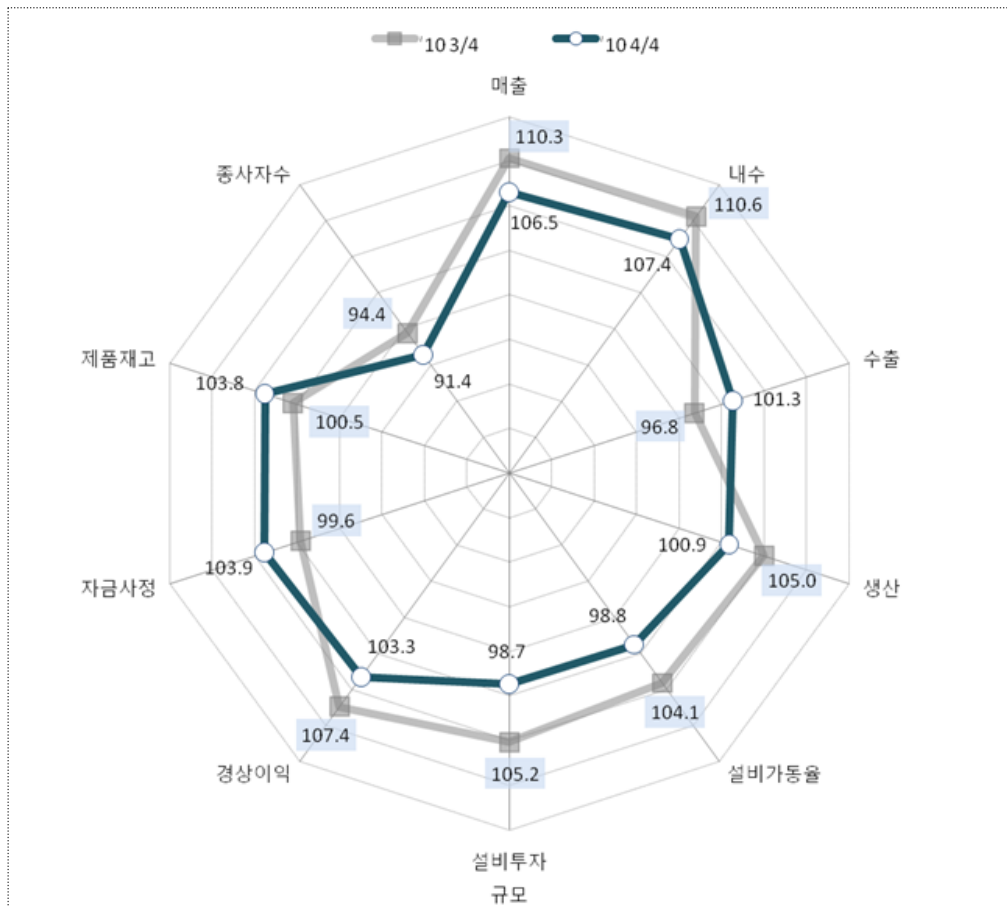
- 수출 부문의 실적지수는 2010년 2/4분기와 비교하여 11.6p 증가한 105.4를 기록한 반면 내수 부문은 전분기 대비 10.8p 감소한 95.7을 기록
 - 수출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2010년 3/4분기 매출 실적 역시 전분기 대비 9.4p 감소한 96.8을 기록
- 기업의 경영여건을 보면 설비가동률, 설비투자, 제품재고 등의 실적은 상승한 반면 생산, 경상이익, 자금사정 등은 하락하여 혼조세
 - 생산, 설비가동률, 설비투자규모가 기준치(100)를 상회하는 등 기업의 생산과 투자 활동은 긍정적이지만 매출, 경상이익의 부진과 제품재고 증가를 고려할 때 기업경기를 낙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 종사자수는 전분기 대비 3.0p 하락한 89.4를 기록
 - 2009년 3/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기업에 필요한 적정 종사자보다 부족한 것으로 조사
 - 경기에 후행하는 고용부문의 특징을 고려할 때 경기회복 기대감에 비해 체감경기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고용실적이 개선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판단



[그림 14] 서울의 각 부문별 실적 지수

- 서울소재 기업의 2010년 4/4분기 부문별 전망은 매출(106.5), 내수(107.4), 수출(101.3), 생산(100.9), 경상이익(103.3), 자금사정(103.9), 제품재고(103.8) 등에서 기준치(100)를 상회하여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
- 비록 매출, 내수, 생산, 경상이익 부문의 전망지수가 전분기 대비 하락하였지만 전반적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판단
- 종사자수 전망지수는 전분기 대비 3.0p 감소한 91.4를 나타내어 고용시장의 개선이 빠르게 나타나지는 않을 전망

-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하반기 채용규모 확대계획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고용시장 안정화는 다소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으로 분석



[그림 15] 서울의 각 부문별 전망 지수

IV. 종합분석 결과 및 시사점

서울의 경제는 3/4분기 중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성장폭은 다소 조정될 것으로 판단

- 서울의 생산, 소비, 고용 부문에서 전반적인 경기회복세 유지
 - 2010년 7월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9%,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1%, 취업자수는 3.1% 증가하여 고른 회복세를 유지
 - 산업생산의 구성요소인 중간재와 소비재는 전년동월대비 생산이 증가하였고, 상반기 회복이 더디게 나타났던 대형소매점 판매액 역시 증가하는 등 생산 및 소비심리 회복세 유지
 - 최근 고용은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주요 기업의 하반기 채용규모가 증가하는 등 고용사정 개선에 긍정적 요인이 있지만 4/4분기 서울소재 기업의 채용여건 개선이 더디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어 청년층 취업은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전망

서울의 소비자와 기업의 체감경기는 중립적이나 경기전망은 높게 조사되어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

- 서울의 2010년 3/4분기 「소비자태도지수」는 2분기 연속 하락하면서 기준치(100)를 하회하여 서울 시민들의 체감경기가 부진한 것으로 조사
 - 서울의 소비자 체감 경기는 1/4분기 100.0에서 3/4분기 98.5로 하락
 - 전분기 대비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으나 기준치(100)에 근접하고 있어 서울 소비자들은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서울의 「미래경기판단지수」는 3/4분기 109.7을 기록하여 1년 후 경기회복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
- 전분기 대비 3.5p 하락하여 경기회복 기대감이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기준치(100)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경기회복에 대해 낙관적인 것으로 분석
- 서울소재 기업의 「업황전망지수」는 전분기 대비 1.5p 상승한 105.4를 기록한 반면 실적지수는 전분기 대비 1.3p 하락한 93.7을 기록하여 체감경기과 경기전망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
- 2009년 3/4분기 산업별 「업황실적지수」를 살펴보면 제조업 실적은 상반기에 이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비제조업 실적은 조정되어 비제조업의 체감경기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반면 산업별 「업황전망지수」는 「업황실적지수」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어 비제조업에서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
- 비제조업은 3분기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기준치(100)를 상회하여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게 나타났지만 제조업은 2분기 연속 하락하며 기준치를 하회하는 97.1을 기록

생활물가 관리, 청년층 일자리창출 등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어 경기안정화 유지 필요

- 소비자 경기조사 결과 「물가예상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2010년 3/4분기 이후 물가불안 심리 확대 예상
- 최근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농축산물의 공급불안정과 가격상승, 개인서비스 요금 중 교육비 인상 등에 따라 향후 생활물가 체감 상승폭이 클 것으로 판단

- 서울시는 물가의 안정화를 위해 물가 및 유통정보의 신속한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물가정보망'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 또한 물가 불안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개인서비스요금과 공공서비스요금의 인상시기, 인상폭 등 관련 논의를 물가동향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조절할 필요
-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였던 정책에 대한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사업의 개선 및 지속적 추진이 필요
- 하반기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취업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청년층 취업여건 개선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
- 따라서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 '청년창업 프로젝트' 등 그동안 서울시가 청년층 취업대책으로 진행하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 각 사업의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사업의 타당성 평가와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박희석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27

hspark@sdi.re.kr

윤형호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31

younh@sdi.re.kr

김범식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76

kbs@sdi.re.kr

부록 : 2010년 3/4분기 주요 조사 결과

<표 1> 서울지역 소비자 태도 지수

	소비자 태도	생활 형편		경기 판단		구입 태도	
		현재 생활형편	미래 생활형편	현재 경기판단	미래 경기판단	내구재 구입태도	주택 구입태도
2009년 3/4분기	101.9	84.6	113.9	87.3	121.9	101.5	101.9
2009년 4/4분기	101.1	86.9	109.6	88.0	116.6	104.3	95.9
2010년 1/4분기	100.0	87.7	108.8	84.3	116.6	102.6	96.5
2010년 2/4분기	99.2	88.7	112.3	83.1	113.2	99.0	92.6
2010년 3/4분기	98.5	90.6	110.6	81.5	109.7	100.3	96.5

<표 2> 서울지역 소비자 소비지출 지수

	소비지출		순자산	고용상황	물가예상
	현재 소비지출	미래 소비지출			
2009년 3/4분기	89.3	88.0	96.8	102.1	145.4
2009년 4/4분기	91.7	91.1	98.1	101.3	144.8
2010년 1/4분기	92.2	94.2	97.3	98.3	145.9
2010년 2/4분기	94.2	98.7	98.4	104.7	151.0
2010년 3/4분기	93.1	98.0	95.9	107.6	157.9

<표 3> 서울지역 기업 경기 지수

구 분	실적					전망				
	'09 3/4분기	'09 4/4분기	'10 1/4분기	'10 2/4분기	'10 3/4분기	'09 4/4분기	'10 1/4분기	'10 2/4분기	'10 3/4분기	'10 4/4분기
매출	94.3	91.3	99.4	106.2	96.8	98.7	99.9	103.0	110.3	106.5
내수	92.3	91.3	99.9	106.5	95.7	97.8	99.8	102.8	110.6	107.4
수출	97.1	93.2	100.8	93.8	105.4	100.8	99.4	107.9	96.8	101.3
생산	101.2	100.5	104.6	102.0	101.6	102.9	106.7	113.4	105.0	100.9
설비가동률	87.3	95.1	97.4	100.4	105.5	90.5	105.3	104.0	104.1	98.8
설비투자규모	102.8	94.7	93.3	99.0	102.8	100.4	100.9	98.1	105.2	98.7
경상이익	90.2	92.4	90.3	102.7	94.8	93.6	101.3	92.7	107.4	103.3
자금사정	93.7	95.4	90.9	96.4	94.6	95.2	99.3	98.5	99.6	103.9
제품재고	104.9	105.8	105.8	97.8	104.2	104.1	104.4	107.7	100.5	103.8
종사자수	94.3	97.8	95.1	92.4	89.4	95.0	98.1	93.7	94.4	91.4

본 조사는 2008년 3/4분기 이후 서울지역 표본 1000가구와 50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표본의 신뢰수준은 95%, 오차는 ±3.1%임(2010년 3/4분기 조사 시점은 2010년 8월초).